

농촌지역 위기 돌파구 찾다

임실군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주력... 고품화·인구감소 등 대안으로

임실군이 농촌지역의 미래를 주도해 나갈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농촌의 고품화와 인구감소, 과소마을 증가 등의 대안으로, 마을만들기 사업활성화에 발로 뛰는 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찾아가는 마을학교'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군은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낸 데 힘입어, 2018년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된 것을 적극 홍보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4일간 임실읍과 청유면, 신평면, 오수면 등 관내 4개 거점지역을 순회하며, 마을이장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학교를 열었다.

마을학교는 마을사업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 군 차원의 차별화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된 교육내용은 2018년에 추진될 임실군 자체 마을만들기사업과,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마을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 등이다. 여기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 등이 강조됐다.



임실군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임실읍과 청유면, 신평면, 오수면 등 관내 4개 거점지역을 순회하며, 마을이장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학교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전북도 삼라농정의 핵심 시책 중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과 농식품부 등을 포함해 내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총 31억원 국·도비를 확보한 점 등을 알리며, 마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우수농촌체험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수마을 대표사례에 대해 청취하고, 체험실습도 함께 병행하는 등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알차게 진행했다.

현재 임실군은 내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2개 읍·면 중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78개 마을을 대상으로, 향토자원 조사 및 마을운영 현황 진단을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심 민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인구감소 등 농촌지역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핵심경쟁력"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마을별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지리산 웰빙허브 산업특구

우수특구 지정 '힐링의 메카' 위상

남원시 '지리산 웰빙 허브 산업특구'가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성과 평가에서 '우수지역특구'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3,500만원을 받았다.

최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우수지역특구 시상식'에는 지역 특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0곳 등 모두 13개의 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우수특구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에서 전국 190개 특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6년 특구운영성과에 대한 서면평가와 두 차례의 현지실사 및 발표를 거쳐 선정했다.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는 지역 향토자원인 '허브'를 특화하여 지난 2005년 9월에 지정되었으며, 적극적인 규제완화 특례운영으로 지역특구와 연계한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허브밸리조성과 허브산업 활성화에 노력해왔다.

특히 방문객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구내에 허브 힐링체험과 허

브제품 및 화장품 전시·판매, 음식집(식음료), 놀이기구, 볼거리등 관광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했고, 민자를 유치하여 관광호텔도 건립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16년 완공된 허브복합도피어관을 활용한 체험 및 연구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직접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고 자신만의 화장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허브 농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계절별 허브와 눈꽃을 테마로 한 다양한 축제 개최를 통해 허브밸리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줌으로써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남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원시는 앞으로 특구내 다양한 이벤트 및 축제 개최, 관광호텔과 야로 마테리아피관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 힐링의 메카 거점지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가 AI·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발빠른 방역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악성 가축질병 꼼짝마!"

남원시 차단방역 강화

남원시가 AI·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발빠른 방역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최근 고창과 전남 순천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남원시 유입차단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장소 2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여 모든 축산관련 차량에 대하여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한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위하여 긴급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축협과 남원시에 보유중인 소독차량 5대를 가동하여 닭, 오리 가금농장 및 철새도

래지 하천변에 촘촘한 소독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차단을 위하여 남원시 우제류 가축 153천두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며 흑염소에 대한 항체검사 결과 100%의 항체양성을 보이고 있고 농장소독을 철저히 병행하고 있다.

시는 AI·구제역 가축방역대책상황실과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운영하며 방역대책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신고 시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야간전화 민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동우 축산과장은 "AI·구제역 차단을 위해서는 농장소독과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축하합니다"

임실군 29일 성공개최 기념 행사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성화봉송 축하행사가 오는 29일 개최된다.

임실군은 이날 성화봉송 주자가 도착하기 전인 오후 3시부터 치즈테마파크 특설무대에서 지역축하행사를 열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성화봉송은 지난 1일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상도, 전남을 거쳐 내년 2월 9일까지 7,500명의 주자들이 101일간의 일정으로 2,018km를 달리게 된다.

29일에는 44명의 성화봉송 주자가 9.6km 거리인 오수부터 임실, 청유, 강진, 관촌을 거쳐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도착, 성화를 인치할 예정이다.

축하행사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성화도착, 올림픽 파트너사 축하공연, 폐막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개막공연에서는 '어울림의 꽃 농악'이라는 주제로 임실필봉농악보존회 단원 80여명이 관객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연을 펼친다.

또한 올림픽 파트너사의 LED를 활용한 퍼포먼스와 감각적인 영상 구성으로 LED인터랙티브 공연도 펼쳐진다.

이어 임실의 맛과 멋 그리고 흥을 소재로 한 공연이 축하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군은 지난 23일,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해 군에서 새롭게 운영중인 시설 3곳의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에는 기존해설사 11명과 올해 하반기 선발된 7명의 신규해설사 등 18명이 참여해, 건강장수체험과학관을 시작으로 발효소스토굴, 순창군순마장 순서로 진행됐다.

건강장수체험과학관에서는 과학관의 생·로·병·사 각각의 테마를 활용한 체험 뿐만 아니라 실랜드, 당노캠프 등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진행중인 여러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발효소스토굴에서는 세계소스전시와 미디어아트를 관람하면서 소스 하나하나에 얽힌 스토리텔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히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소스산업에 대한 설명이 더해졌다. 순마장에서는 순마의 효과, 순마와 허마법, 순마수칙 10개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직접 순마체험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지를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해설을 하는데 생기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질 높은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방분권 개헌 이뤄나가자"

황숙주 순창군수, 출범식 기조발언서 강조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난 2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전북회의 출범식'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전북도민의 열망을 한 데로 모아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을 이뤄나가자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열린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출범식 및 전북인 공감마당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서 주최하고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송하진 전북도지사 황숙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 등 9개 지자체 시장군수, 김택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북본부 상임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

대표, 이병렬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김진구 전북지역신문협회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뜻을 함께 했다.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에는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전북도의회, 전북시군자치의회협의회, 전북지역신문협회,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전북이동장협의회, 전북주민자치협의회, 전북시민재단, 전라북도의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출범식은 축하공연에 이어 개회사, 출범식 결의문 낭독, 전북 시군 대표 위촉장 수여, 기조발언, 전북인 1분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매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